

韓國型 防塵 마스크 國産化

動資研, 三共物産과 공동개발

産業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韓國型防塵마스크가 國産化돼 근로자들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韓國동력자연연구소가 三共物産과 공동으로 1억8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이 마스크는 한국인 체형에 알맞게 안면부를 제작, 착용감이 좋으며 방진필터를 빨아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분진포집율이 99.1%로 높으면서도 배기저항이 적어 심한 노동을 할때도 답답한 감을 주지 않는다.

앞으로 이 방진마스크가 국내에서 量産되면 1개에 5천원 정도의 싼값으로 보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간 1백억원 정도의 외화절약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電子부품용 웨이퍼

東星물산서 國産化

지금까지 日本에서 전량 수입돼 오던 다이오드용 4인치 웨이퍼가 국내 최초로 개발돼 오는 4월부터 본격 量産에 들어간다.

中小전자부품업체인 東星物産工業(대표 金東會)이 5년간의 연구끝에 자체기술진에 의해 國産화에 성공하고 모두 33억원을 투입, 경기도 利川공장에 月생산능력 웨이퍼 3만5천

~4만장, 다이오드 7천만~1억 개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동성물산은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웨이퍼 전량을 수입, 1암페어에서 2천볼트까지의 다이오드를 생산해 왔으나 이번에 國産화를 계기로 기존 다이오드는 물론 3만볼트까지의 고압다이오드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IC카드시스템 開發

三星電子, 國內최초로

기존의 信用卡나 현금카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磁氣스트라이프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활용범위가 넓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IC카드시스템이 國內 최초로 개발되어 그 보급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三星電子(대표 姜晋求)가 개발한 IC카드시스템은 IC카드에 데이터를 써넣거나 읽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는 물론 IC카드 상호간의 통신이 가능하며, PC와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분야의 개발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磁氣카드가 1개에 최대 72자나 144자밖에 기록할 수 없고, 내용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반면 IC카드는 기존의 자기카드와 같은 크기, 같은 두께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RAM, ROM등이 내장되어 2,000자 이상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기록된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읽을 수가 없다.

젖소의 早期 妊娠진단법 개발

斗山연구소, 수정후 20일만에 임신여부 판정

면역학을 이용해 젖소의 임신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斗山연구소가 建國大 金鍾培 교수와 함께 개발한 이 진단법은 젖소가 수정후 20일 정도만 지나면 임신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젖소의 난소기능 확인과 분만후 수정시기도 예측할 수 있다.

이 조기임신진단법은 우유와 혈액에 있는 프로게스테론

이란 성호르몬에 대한 항체를 생산, 이 항체를 이용해 수정후 20일경에 젖소의 우유나 혈액의 성호르몬 함량을 분석, 임신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종전에 젖소의 임신을 확인하려면 60여일이 소요됐으나 조기임신진단법의 개발로 임신확인에 40일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